

Paramedic Student Perception and Attitude on Child Abuse

Ji-Yeon Jung*, Sang-Yeol Sin*, Jae-Min Lee**

*Professor,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Howon University, Gunsan, Korea

*Professor,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Howon University, Gunsan, Korea

**Professor,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in Jeolla-do province from September 1 to 10, 2020 using Naver survey form to find out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paramedic students about child abuse. A total of 293 students were studi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20.0. The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obligations and activation plans, and awareness of child abuse education were calculated with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the degree of child abuse awareness was calculated by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behavior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ere used T-test and ANOVA.

▶ **Key words:** Paramedic Student, Child abuse, Perception, Attitude

[요 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라도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네이버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29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활성화 방안, 아동학대 교육 인식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 **주제어:** 응급구조학과 학생, 아동학대, 인식, 태도

-
- First Author: Ji-Yeon Jung, Corresponding Author: Sang-Yeol Sin
 - *Ji-Yeon Jung (cgy504@hanmail.net),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Howon University
 - *Sang-Yeol Sin (since2000@howon.ac.kr),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Howon University
 - **Jae-Min Lee (jea4622@naver.com),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 Received: 2020. 11. 19, Revised: 2020. 11. 30, Accepted: 2020. 12. 01.

I. Introduction

아동이란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이런 아동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희랍시대부터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소유물로 인식하고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자녀관을 가졌다. 우리나라 또한 유교적 문화에서 교사나 부모의 매는 사랑의 매로 체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녀 양육의 방법이라고 인식되어졌다[1].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보고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의 경험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며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낮은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의 문제, 스트레스 대처 능력 문제, 우울증, 낮은 학업성취도, 높은 자살 충동 등 개인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2], 아동이 사회적으로 위축되도록 하여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3,4].

이에 서구사회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설립, 아동학대 방지법 제정, 보호체계 정비, 아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때는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신고의무화 조치 등의 사회적 아동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5]. 이에 실제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기관이나 전문기관의 도움만 바라기보다는 아동을 가까이에서 계속 관찰할 수 있는 해당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정보 및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6].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이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아동보호 전문시설 및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 운영,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 응급치료 및 심리치료,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등 아동학대 사례에 대하여 직접서비스와 신고의무자,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

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7]. 그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총 건수는 74,684건이었으며, 10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55,243건 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4,133건에 비해 2010년 신고 건수는 9,199건으로 약 2.2배가 증가하였다[8]. 이러한 관심과 신고체계에서 현장에서 처음으로 신고를 접하고 대응하는 소방공무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하는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아동학대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국 아동학대 사례 중 소방대원이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신고한 건수는 150건으로 일 지역 아동학대 의심사례만도 1,519건임을 감안하면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119는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 제보가 들어올 경우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우선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다[9].

2017년에 전국60여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34,169건이었으며, 이중 인천 서구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목포시가 494건 순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8.6%,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1.4%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교 직원이 1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방구급대원은 0.1%(3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병원 전 단계에서 다른 의료전문가와 달리 가정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구급대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10,11], 최초반응자로서 아동학대를 조기 인식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0]. 하지만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의 대부분은 유아교사, 보육교사, 초등교사,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1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13], 응급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14]로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예비 구급대원이 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고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미래 구급대원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아동학대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Research Plan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Research Subject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라도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네이버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322명이나, 부적절하게 기입한 29부를 제외하고 총293부를 분석하였다.

3. Research Tool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선행연구[13-16]의 조사도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40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문항, 아동학대 인식 정도에 관한 문항 20문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활성화 방안 12문항, 아동학대 교육관련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Data Analysis Method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활성화 방안, 아동학대 교육 인식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293명중 성별분포는 남자가 159명(54.3%)으로 여자 134명(45.7%) 보다 많았으며, 학년으로는 2학년이 84명(28.7%), 3학년 77명(26.3%), 1학년 72명(24.6%), 4학년이 60명(20.5%)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64명(21.8%), 천주교와 불교는 16명(5.5%)로 같았으며 기타가 185명(63.1%)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이나 구급차동승실습 경험 유무는 없다가 198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중 95명(32.4%)이 실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y		N	(%)
Gender	Male	159	(54.3)
	Female	134	(45.7)
Grade	1Grade	72	(24.6)
	2Grade	84	(28.7)
	3Grade	77	(26.3)
	4Grade	60	(20.5)
Religion	Christian	64	(21.8)
	Buddhism	16	(5.5)
	Catholicism(catholic)	16	(5.5)
	Others	185	(63.1)
Practical experience	Yes	95	32.4
	No	198	67.6

2. Degree of child abuse awareness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정도는 [Table 2]와 같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체 여러 곳에 여러 물체 모양의 멍 자국이 있다’라는 항목에서는 283명(96.6%)이 아동학대 행위라고 응답했으며, ‘신체 여러 곳에 경계선이 분명한 화상상처가 있다’ 270명(92.2%), ‘2세 소아가 여름인데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며 기저귀 발진이 심하다’ 265명(91.5%), ‘부모가 종교적 신념으로 환자의 치료를 강력히 거부했다’ 265명(90.4%), ‘아동이 밥맛이 없다가하여 하루 한끼만 챙겨주고 있다고 부모가 진술하였다’ 264명(90.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에 관한 항목을 분류하여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계산하였을 때, 신체적 학대 인식이 5.92±1.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 인식 2.82±1.40점, 방임은 2.82±1.40점, 성적 학대 인식은 .67±.46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child abuse awareness

Category		N(%)
P h y s i c a l	There are so many bruises, various shapes, and on the various places on the child's body.	283(96.6)
	There are obvious burn injuries in many parts of the body.	270(92.2)
	The medial sides of both femoral regions have a palm size of the second degree burn injury.	226(77.1)
	Two rib fractures were found in a 1 year old child who reportedly fell off a 20cm high sofa.	243(82.9)
	A spiral fracture from a femur was found in 2 years old infant.	239(81.6)
	A newborn visited the emergency room because he/she showed the alteration of consciousness and retinal hemorrhage without external injuries.	222(75.8)
Subtotal(M±SD)		5.92±1.67

E m o t i o n a l	A child cries and rejects severely during a physical examination.	164(56.0)
	A child avoids the eye contact with medical staffs and calm during a medical treatment	189(64.5)
	A 3 years old infant who has poor hygiene tries to be embraced in his/her mother's arms, but she continues to pushing her baby away.	256(87.4)
	Subtotal (M±SD)	2.82±1.40
N e g l e c t	The degree of a child's injury is lighter than description stated by parents.	201(68.6)
	The parents strongly reject their child's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their religious beliefs	265(90.4)
	A 2 years old infant wears thick clothes even in the summer season, and diaper eruption is severe.	268(91.5)
	The parents described that they gave their only one meal a day because the child doesn't have a good appetite.	264(90.1)
	Subtotal(M±SD)	2.82±1.40
S e x u a l	The vaginal os, was obviously observed during simple foley catheterization to a 4 years old child.	222(75.8)
	Subtotal(M±SD)	.67±.46
Total(M±SD)		14.19 ±4.06

며, 아동학대예방센터 1391에 신고한다는 121명(41.3%)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18명(6.1%)중 그 이유는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으므로'가 7명(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가 개인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4명(1.4%)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를 어렵게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아동학대가 명확하지 않다'가 166명(56.7%)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자의 신변노출위험 부담이 된다' 49명(16.7%), '신고가 개인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져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35명(11.9%), '신고 후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 심신에 부담은 준다' 20명(6.8%)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가해자의 변명에 넘어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의 부실한 대처로 학대의 정도가 심해 질까봐', '신고 후 제대로 된 조치가 될지 걱정 된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은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이 110명(37.5%)로 가장 많았다.

Table 3.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obligations and activation plans

3.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obligations and activation plans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자주 일어 난다'가 157명(53.6%)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심각하다'가 117명(39.9%)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중 졸업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자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상자는 188명(64.2%)였으며, 이들 중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응답자가 81명(31.1%)였 으며, '인터넷' 63명(21.5%), '세미나나 교육'이 47명(16.0%)순 이였으며 기타가 92명(31.4%)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을 213명(72.7%)이 모르고 있었다. '아동학대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상자가 156명(53.2%)로 많았으며 '최근 1년 이내 학대 받은 아동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5명(5.1%)로 나타났다. '만약 이웃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면 외부기관에 신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75명(93.9%)이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디에 신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파출소 등 수사기관 112'에 신고한다가 159명(54.3%)로 가장 많았

Category	N(%)
How much do you think child abuse is occurring in our country?	
Very often	50(17.1)
Often	157(53.6)
Normal	76(25.9)
It doesn't happen very much	10(3.4)
How serious do you think the problem of child abuse in our society is?	
Very serious	117(39.9)
Somewhat serious	116(39.6)
Normal	52(17.7)
It doesn't happen very much	8(2.7)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you will be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after graduation?	
Yes	188(64.2)
No	105(35.8)
From what kind of channel did you know that you were obligated to child abuse report?	
TV, Radio, Mass media	81(31.1)
Internet	63(21.5)
Child abuse seminar and education etc.	47(16.0)
	92(31.4)
Do you know that child abuse call number is 1391?	
Yes, I know	80(27.3)
No, I don't know	213(72.7)
Did you know that child abuse is a criminal act that can be criminally punished?	
Yes	156(53.2)
No	137(46.8)
Have you seen a abused child in the last year?	

Yes	15(5.1)
No	278(94.9)
What make you hard to report child abuse?	
The degree of child abuse is not severe or the evidence is not clear.	166(56.7)
The burdensome to report it as a risk of personal exposure of reporter.	49(16.7)
The various procedures would burden reporters after reporting child abuse.	20(6.8)
A reporting has been intervening on a person's private family	35(11.9)
What make you hard to report child abuse?	
Confidentiality of the reporter	69(23.5)
Immediate intervention by the reporting facilities in reporting	59(20.1)
Preparing a protection system to protect children upon reporting	110 (37.5)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19(6.5)
Promo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and strengthen the education program	17(5.7)

4. Perception of child abuse education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Table 4]와 같다.

교육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259명(88.4%)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나 세미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252명(86.0%)가 ‘필요 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의료 인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마련 된다면 참석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67명(91.1%)가 ‘참여 하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어떤 교육의 내용이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동학대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아동학대 발견 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학대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178명(6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4. Perception of child abuse education

Classification		N(%)
Experience of child abuse education	Yes	34(11.6)
	No	259(88.4)
Necessity of child abuse education	Yes	252(86.0)
	No	41(14.0)
Hoping to participate child abuse education	Yes	267(91.1)
	No	26(8.9)
What kind of education or seminar do you think will help detect and prevent child abuse?	Showing actual cases of child abuse and way of cope with child abuse after finding it	42(14.3)
	The way of decision for an abused child	178(60.8)
	The informations about reporting process and reporting requesting facilities for child abuse	43(14.7)
	Informations that help to abused children	30(10.2)

5.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hild abuse aware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정도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여자(6.16±1.33)가 남자(5.71±1.89)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9)를 나타냈으며, 방임에서도 여자 4.87±1.16가 남자4.53±1.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P=.036)가 있었다.

실습경험에 따른 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제에 따른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6.12±1.40), 방임에 대한 인식(4.83±1.16)은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학대는 2학년 학생(.72±.44)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신체적 학대(P=.008), 방임(P=.042), 성적학대(P=.01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5.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hild abuse aware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ategory	Physical			Emotional			
	M±SD	t/F	P-value	M±SD	t/F	P-value	
Gender	Male	5.71±1.89	-2.357	.019*	2.79±1.43	-.361	.718
	Female	6.16±1.33			2.85±1.36		
Practical experience	Yes	5.96±1.54	.331	.741	3.00±1.35	1.475	.141
	No	5.89±1.73			2.74±1.42		
Grade	1st grade	5.84±1.78	3.980	.008*	2.88±1.43	2.455	.063
	2nd grade	5.77±1.95			2.58±1.49		
	3rd grade	6.12±1.40			2.94±1.29		
	4th grade	5.95±1.41			2.93±1.35		

Category		Physical			Emotional		
		M±SD	t/F	P-value	M±SD	t/F	P-value
Gender	Male	4.53±1.57	-2110	.036*	.71±.45	1.391	.165
	Female	4.87±1.16			.63±.48		
Practical experience	Yes	4.65±1.37	-.309	.758	.65±.47	-.584	.559
	No	4.70±1.43			.68±.46		
Grade	1st grade	4.73±1.50	2.773	.042*	.70±.45	3.581	.014*
	2nd grade	4.54±1.57			.72±.44		
	3rd grade	4.83±1.16			.61±.49		
	4th grade	4.65±1.36			.65±.48		

IV. Conclusion

본 연구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미래 구급대원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아동학대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정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체 여러 곳에 여러 물체 모양의 멍 자국이 있다'라는 항목에서는 283명(96.6%)이 아동학대 행위라고 응답했으며, '신체 여러 곳에 경계선이 분명한 화상상처가 있다' 270명(92.2%) 순으로 신체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에 관한 항목을 분류하여 점수화한 결과 신체적 학대 인식이 5.92±1.67점, 정서적 학대 인식 2.82±1.40점, 방임은 2.82±1.40점, 성적 학대 인식은 .67±.4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외상의 경우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외상이 없는 경우 오랫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행동 특성에 대해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희경[12]의 연구와 김지윤[17]의 연구결과에서 처럼 학대의 증상이 신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인식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 정서적학대나 방임 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행동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은 '우리 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 난다'가 157명(53.6%)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가 117명(39.9%)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을 213명(72.7%)이 모르고 있었다. 이는 김태현[4]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향상뿐만 아니라 신고제도에 대한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 및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겠다.

또한 '만약 이웃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면 외부기관에 신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75명(93.9%)이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18명(6.1%)중 그 이유는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으므로'가 7명(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가 개인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4명(2.3%)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은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이 110명(37.5%)로 가장 많았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미래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임상증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신고의무자로서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고의무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259명(88.4%)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252명(86.0%)가 '필요 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마련 된다면 참석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67명(91.1%)가 '참여 하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어떤 교육의 내용이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동학대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아동학대 발견 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학대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178명(6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한 결과에서도 한 해 신고의무자 중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 경찰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기회가 없거나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15,18-20]. 따라서 현장에서 출동하여 아동학대를 구분하고 인지할 수 있는 끊임없는 교육과 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강명재[21]의 연구결과처럼 아동학대 신고절차와 신고 후 아동의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례교육과 체험 교육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경우[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의 기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홍보 또한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기회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실천은 아동학대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홍보와 교육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신고의무자 역할에 맞는 아동학대 관리 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Howon University's Research Fund in 2019.

REFERENCES

- [1] Paolucci. E.O. & Viokato, C. "A meta-analysis of published research on the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3, pp. 197-221, 2004.
- [2] Central Child Abuse Center. "National Child Abuse Status Report". 2003.
- [3] Park KY. "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and Abuse on the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5, No. 1, pp. 1-15, 2014.
- [4] Kim T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the Course-Taking", *Korea Society for Study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5, No. 3, pp. 193-209, 2015.
- [5] Lee HG. "The reality of child abuse, Korean Child Abuse Prevention Consultation Sennima Collection". 1999.
- [6] Lee CH. "A Study on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Crimes",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Vol. 13, No. 1, pp. 1-30, 2018.
- [7] Park SY.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of Teachers in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onkwang University, Thesis for Degree of Maste*. 2018.
-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0.
- [9] National Child Abuse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 [10] Kim TH. "119 EMT's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ir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K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for Degree of Maste*, 2019.
- [11] Brady. M. "UK Paramedics Confidence in Identifying Child Sexual Abuse: A Mixed-Methods Investig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Vol. 27, No. 4, pp. 439-458, doi:10.1080/10538712. 2018.
- [12] Yoo HG.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child abus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for Degree of Master. 2001.
- [13] LEE SY. "Research on the 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Officer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for Degree of Maste. 2000.
- [14] Kim JM.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on child abuse" ,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University of Ulsan*, Thesis for Degree of Maste, 2004.
- [15] Yoon YB.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Behavior of the Child Abuse Reporting Officer, *Han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for Degree of Maste. 2002.
- [16] Lee YG.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Needs of Small Hospital Nurses", *Yonsei University Thesis for Degree of Maste*. 2007.
- [17] Kim JY. "A Study of Child Care Teacher's Awareness on Child Abuse",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sis for Degree of Maste. 2000.
- [18] Kim JG.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Employee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for Degree of Maste. 2002.
- [19] Cho MS.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Notifi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Thesis for Degree of Maste. 2003.
- [20] Hur NS.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and Reporting Behavior of Child Abuse of the Child Abuse Reporting Officers", *Korean Social Welfare*. 2003.
- [21] Kang MJ. "A Study on Recognition of the Mandatory Report of Child Abuse by Social Worker",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2006.

Authors



Ji-Yeon Jung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1989, 2004 and 2009, respectively. Dr. Jung joined the faculty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t Howon University, Gunsan, Korea, in 2020.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Howon University.



Sang-Yeol Sin received the M.S. degrees in Public Health fro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08, respectively. He is a doctor course completion in Medicine from Wonkwang University, Korea, in 2012.

Sin joined the faculty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t Howon University, Gunsan, Korea, in 2008.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Howon University.



Jae-Min Lee received the Ph.D. degrees in Biotechnology and Chemical Engineering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7,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Gwangju, Korea, in 2020.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